

전력망 확충 지연에 '송·변전 시설 주민지원금' 인상

10년만에 18.5% ↑ 산자부 송주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물가지수상승률 반영...한전 연간 1435억→1700억 증가 전망

송·변전 설비가 설치된 지역 인근에 사는 지역민들을 위한 지원금이 확대된다. 주민 수용성을 높여 대규모 전력 수요가 필요한 에너지센터 및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에 필요한 송·변전 설비 확대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10일 한국전력공사(한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4일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송주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향후 송·변전 설비를 확충하는 데

속도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 송·변전설비 인근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주민지원금 규모를 기존보다 18.5% 인상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는 지난 2014년 국가 전력망 구축을 위한 송·변전설비가 기피시설로 인식되면서 지역마다 반발이 끊이지 않는 점을 감안, 송주법을 제정해 전기료 할인과 마을 공동체에 지원금을 주는 형태로 송·변전설비 건설을 추진해왔다.

당장, 광주·전남지역의 경우 4건의 송전선로 건설사업이 지역 주민들 반대에 부딪혀 입지선정 단계부터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장성군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경우 기존 계획 대비 6년 5개월 이상 지연되고 있으며 보성(3년 9개월), 영광(6개월)도 비슷하다.

특히 영암지역 154kV 시중S/S 건설사업은 지역 주민들이 입지선정위원회조차 참여를 거부하고, 지자체도 지역민 반발을 들어 사업계획 공고 및 열람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정부는 관련 법 개정은 이같은 송·변전 설비 건설이 지연되는 사태를 조금이나마 막아보자는 취지라는 게 전기업계 분석이다.

주민지원금을 인상해 주민들 간 수용성을 높이면

관련 설비 건설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개정안에 포함된 주민지원금 인상분은 송주법 제정 이후 지난 10년간 고정됐던 주민지원금에 누적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을 반영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한전의 연간 주민지원금 지급 규모는 지난해 1435억원 수준에서 1700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오는 10월 14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송·변전설비에 대한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절차도 개선한다. 송·변전설비에 대한 보상을 협의하기 위한 인근 지역민의위원회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위원회로 통합하고 사업자

대표 위원 정원을 3명에서 4명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다.

전력업계는 주민지원금 인상 및 주민 수용성 개선안에 따라 향후 지지부진한 송·변전시설 확충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하고 있다. 다만, 송·변전 설비 건설에 따른 주민들의 다양한 반발 원인을 감안하면, 주민지원금 인상만으로 송·변전 설비 건설에 따른 반발을 누그러뜨릴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는 반응도 나온다.

전력업계 관계자는 "송·변전시설 확충 및 전력망 구축은 향후 국가 산업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라며 "주민지원금 인상 등의 개선방안을 지속 마련해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한전, 美 번스앤맥도넬사와 송전망 건설·신사업 공동추진

한국전력공사(한전)는 지난 9일 뉴욕 록펠러센터에서 미국 전력 및 송·배전 분야 시공 1위 기업인 번스앤맥도넬(Burns & McDonnell)과 미국 765kV 송전망 건설사업 및 연계 신사업 공동추진 등을 위한 협력합의서를 체결했다. 한전은 변전예방진단시스템 및 지중케이블 고장점 탐지 기술 등 자체 보유한 전력분야 신기술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한국전력공사 제공>

농어촌공사, 청년농 농지지원에 1조1000억 투입

협의체 운영 등도 적극 추진

한국농어촌공사(공사)가 시행 중인 맞춤형 농지지원사업의 2025년 정부 예산안이 1조 1000억원으로 확정됐다. 공사는 내년 확정된 예산을 통해 청년농업인 육성 및 영농정착 기반 조성에 주력할 계획이다.

우선 공공 임대용 농지매입 사업에 편성된 사업비가 9625억원으로 전체의 87.5%에 달했다.

해당 사업은 상속·이농 등 비농업인 및 고령·은퇴농 소유의 우량 농지 2500ha를 공사가 매입한 뒤 청년농업인에게 우선 지원하고, 비외 타작물을 재배하도록 해 쌀 수급 조절에 기여할 계획이다.

공사가 매입한 농지를 청년 농업인에게 장기 저리로 파는 농지매매사업에도 전년 대비 212억원

증가한 953억원을 투입한다.

또 청년농업인이 원하는 농지를 공사가 매입해 매도를 조건으로 최장 30년간 장기 임대하는 '선임대후매도시업' 역시 올해보다 21억원 증가한 193억원을 편성했다.

지자체 등과 협업체 180억원을 투입, 스마트팜 시설을 구축한 뒤 청년 농업인에게 임대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이밖에도 사업 홍보와 농지 정책 관련 의견 수렴, 청년농 협의체 운영 등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영훈 농지은행장은 "농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 농업인이 묵둔 부담 없이 농지를 확보해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농지 관련 맞춤형 지원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부영그룹, 3년 방치 빛가람 공동주택부지 갑자기 감리자 모집

10월 16일 착공 계획 밝혀 실제 공사로 이어질지 관심

부영그룹이 빛가람혁신도시 내 3년째 방치된 공동주택 부지에 대한 주택건설공사 감리자를 모집하고 나서 배경을 놓고 지역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일 나주시에 따르면 부영그룹 계열사인 동광주택은 지난달 말 '광주전남혁신 C7블록 부영아파트 신축공사'에 대한 감리를 요청했다.

나주시는 지난 5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모집공고를 내고 오는 12일까지 해당 부지에 대한 신축공사 감리자를 모집한다. 부영측의 해당 부지에 대한 공사 감리자 모집 소식이 착공 전 절차라

는 점에서 공사 착공에 돌입하기 위한 수순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C7블록은 빛가람혁신도시 나주권전중 인근 부영그룹 소유 공동주택 부지(면적 6만 4381.5㎡·1만 9475평)로, 부영측은 지하 1층, 지상 17~23층(10개동) 규모로 797세대가 들어서는 공동주택을 짓겠다는 계획을 나주시에 제출한 바 있다.

나주시는 지난 2021년 4월 해당 사업계획을 승인했지만 부영그룹측은 이후 3년 5개월 간 해당 부지를 방치해왔다.

부영측이 건설 경기 및 부동산 시장 침체 등을 내세워 후속 절차에 나서지 않는 데 따라 지역사회에서는 부영측의 공사 지연이 혁신도시 활성화를 더디게 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었다.

아파트 건설과 입주 시기 등을 고려해 상가 등

을 분양받았는데, 건설이 지연되면서 정상적 영업이 불가능해 문을 닫는 경우 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부영 측은 이번 감리자 모집을 시작으로, 오는 10월 16일 착공해 2027년 4월 15일 아파트 단지를 준공한다는 계획을 나주시에 밝혔다.

하지만 지역 부동산 경기가 여전히 좋지 않다는 점에서 실제 건설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반응도 나온다.

빛가람혁신도시에 7년째 거주하고 있는 조모(여·64)씨는 "수년째 중학교 옆 공터에 철근이 쌓여있고, 사방이 철판으로 둘러싸여 산책다닐 때마다 흉물스러웠다"며 "하루 빨리 완공돼 인구 유입 등 도시활성화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연휴 기간 대출 만기·공과금 납부 19일로 연기

카드사, 가맹점에 대금 미리 지급

추석 연휴(9월 14~18일) 기간 금융권 대출 만기일, 신용카드 결제일, 공과금 자동납부일이 돌아오는 경우 연휴 이후인 오는 19일로 자동 연기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연휴 기간 취약부문에 대한 자금 공급 및 국민 금융이용 불편 해소를 위해 대책을 마련,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금융회사(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 등) 대출의 상환 만기가 추석 연휴 중 도래하는 경우 연체이자 없이 만기가 오는 19일로 자동 연장된다.

금융회사와 협의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9월 13일에 조기 상환할 수도 있다.

카드대금 납부일이 연휴 기간에 걸리거나, 보험료·통신료 등의 자동납부일이 연휴 기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출금일이 연휴 이후로 연기된다.

주택금융공사는 연휴 기간 주택연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모든 고객에 대해 9월 13일에 미리 주택연금을 지급한다.

아울러 모든 금융회사는 추석 연휴 중 만기를 맞는 예금에 대해 연휴 기간 이자분까지 포함해 9월 19일에 지급한다.

주식 매도대금 지급일이 연휴 중 있는 경우 연휴 직후로 지급이 순연된다.

카드업계는 46만여 중소 가맹점(연 매출 5억~30억원)에 대해 별도 신청 없이도 연휴 전후에 발생한 카드 대금을 최대 6일 먼저 지급한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은 21조 8000억원 규모의 특별 자금·보조 지원에 나선다. 원자재 대금 결제나 임직원 급여와 상여금 등 순전자금이 필요한 회사가 대상이다.

은행권도 추석 연휴 전후로 중·중소기업·소상공인에 거래 기여도, 신용등급 등에 따른 금리우대 등을 반영하여 총 78조 8000억원(신규 32조원·만기 연장 46조 8000억원)의 대출을 공급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